



## 문화재보호법 3등분 이유는?

문화재보호법 · 매장문화재 법률 · 문화재수리 법률로 분리... 2011년 시행

지난해 문화유산은 조선왕릉과 <중의보감>, 강강술래 등이 잇따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고, 고종 황제 어새 등 해외반출문화재 일부가 반환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익산미륵사지 금제사리 봉안기 등의 발견에는 불교학계와 고고학계뿐만 아니라 역사·미술학계 등이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반면, 새해맞이를 앞두고 순식간에 잿더미로 사라진 여수 항일암처럼 미흡한 문화재 보호·관리 대책은 문화재 행정의 여전한 난제이기도 하다.

분명한 사실은 세계문화유산등록과 매장문화재 발굴 등으로 소중한 성과가 이어지고, 항일암처럼 재해로 사라지는 문화재를 지켜보면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 관련 정책의 틀인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48년 만에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률로 나뉘었다. 특히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명시되면서 문화재 정책이 새 전기를 맞았다는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이경민)은 최근

"국회에서 문화재보호법을 3개로 분법한 제정안이 통과됨(구법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문화재 관련 법제가 체계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이후 34차례 개정만 해왔다. 개정이 거듭되는 동안 입법체계는 복잡·난해해졌고, 관련 법제간에 서로 모순·저촉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문화재수리만 해도 그동안 세부규정이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해 왔지만 정작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12장 104조문으로 구성됐다.

법에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 수립되는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활용을 도모했다(제6·7조).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옮겨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공정화·객관화 시켰다(제8조). 또, 문화재 기초조사제도를 도입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까지도 국가가 현황을 파악해 멸실·훼손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제10조). 문화재별 화재대응지침서를 마련해 하는 등 방재 대책의 수립·시행도 명시했다(제14·85조).

특히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한 조문을 넣어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법률은 국가가 국외소재 문화재의 보호·환수에 나서거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하고,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제67-69조).

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7장 38조문으로 구성됐다.

법에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보다 보존·보호를 우선하도록 했다(제4·5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및 조사, 처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도 건설공사 시행자가 해당 건설지역의 문화재 매장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한 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제6-10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조사기관의 공신력을 담보했고(제24·25조),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근거규정 신설을

통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했다(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해왔던 문화재수리 관련 사항은 7장 62조문의 문화재수리법으로 제정됐다.

법은 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 도입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하도급 제도 정비,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 책임을 지워 부실 수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이번 분법을 두고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당장 4대강 개발사업 등을 앞두고 지표조사 축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문화재 등 문화유산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을 넘어 한 나라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담보한 자산이다. 관련법 정비로 수준 높은 문화재 행정의 토대가 마련된 지금, 달라진 문화재 행정을 통해 국민적 자긍심과 국격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문화재 관련 3개 법률은 2010년 1월 공포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동섭 기자**

## “교육·포교로 사회와 소통하라”

조계종 신년하례법회 7일 해인사서 봉행... 종정 법전 스님 교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스님들이 신년하례법회에서 삼보전 통일을 하고 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새해를 맞아 교육과 포교를 통해 불교중흥의 전기를 마련하고 수행중흥의 확립과 사회적 소통을 실현할 것을 교시했다.

2010년 조계종 신년하례법회가 1월 7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법회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현향, 총무원장 자승 스님 현 다에 이어 노전을 맡은 해인사 창신 스님의 장례에 맞춰 삼보전 통일을 진행했다. 또 종정 예하 하례, 죽비 삼정, 종정 교시, 총무원장 및 원로 의원 하례, 신도대표단 하례, 총무원장 인사, 참석대중 맞절, 중앙신도회 회장단 삼배의 불교전통의식이 이어졌다.

법회에서 법전 스님은 “우리는 조계종 종정 선양을 통한 수행중흥의 확립과 함께 사회적 소통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고,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의 대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모든 일은 신심과 원력 그리고 능력을 갖춘 선재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며 “도제양성을 위한 교육과 일관성 있는 정책, 전종도 평생교육을 통해 법부를 성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스님은 끝으로 “불교계선 출타동시의 대선지식 역할을 항상 자처하셨다. 교육은 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작불사”라고 거듭 강조하며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교육과 포교를 중년의 양대 화두로 정진하며 희망

찬 경인년을 열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 인사에서 “국민과 전 종도의 뜻을 모아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종단원로 스님들이 항상 법체 강녕하시길 기원한다. 또 중앙종회의장, 호계·교육·포교원장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모든 스님들이 신년 하례는 일이 원만 성취되길 바란다”며 “제33대 집행부와 전종도는 종정 스님께서 하교하신 소통과 화합, 교육과 포교를 통한 종단중흥과 종풍진작, 그리고 사회소통을 위해 공심과 신심·원력으로 교시를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지혜, 차석부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동춘 원명 진제 스님 등 원로 스님 12명, 중앙종회의장 보선, 교육원

장 현을, 포교원장 해홍 등 중앙종무 기관장 스님, 불국사 주지 법타, 수덕사 주지 응산,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 22명, 중앙신도회 백창기 명예회장, 김의정 회장 등 주요 신도직능단체장, 서대문 강남도부지사, 심의조 합천군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같은 날 오후 청주 보살사를 방문해 원로의장 종신 스님에게 신년하례를 올렸다.

종신 스님은 자승 스님에게 “여법히 치러진 총무원장 선거와 제33대 총무원 구성이 잘돼 매우 기뻐된다”며 “용신참사 해결에 노력한 것처럼 불교계가 사회 약자를 돕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소통과 화합으로 불교미래를 열어가는데 다같이 노력하자”고 덕담을 내렸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성보 관리, 사전예방이 ‘대안’

조계종 호법부, 전국사찰에 ‘성보 도난 및 훼손 예방 공문’

조계종 호법부(부장 덕문)가 1월 7일 조계종 산하 전국사찰에 ‘성보도난 및 훼손 예방 협조공문’을 보내 성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협조공문은 지난해 11월 19일 동절기 화재예방 협조공문을 보낸 데 이어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호법부의 이러한 조치는 화재예방을 당부한 공고 직후 여수 항일암

화재가 발생함에 대해 일선 사찰의 주의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조공문은 △성보 도난 및 훼손 시 현장보존, 즉각 경찰신고 후 총무원 호법부 보고 △일몰 이후 폭설시 특별 순찰 전개 △경내 전각 시건장치와 CCTV 등 방범 보조기구 점검 △매일 아침예불 시 성보물 일일점검 △도난 가능성 높은 이동가능 성

보물 별도 보관의 5개 수칙을 담았다.

협조문 발송에 앞선 5일, 호법부장 덕문 스님은 “폭설로 경내 순찰 활동이 어려운 상황 등을 이용해 성보 도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지정 성보물에 대한 절도 가능성 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점이 다른 이유로 인한 성보 훼손 가능성도 있다”고 이번 공문 발송 배경을 설명

했다.

이어 덕문 스님은 “한번 도난 당하거나 훼손당한 성보물은 원상회복이 대단히 어려운 이상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항후 발생하는 성보 도난·훼손에 대해 관련 종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2001년 제정된 ‘방범·방화에 관한 령’에서 사찰별로 소장된 지정문화재에 CCTV 등을 설치토록 했지만 일선 사찰에서는 재원 문제 등으로 경비시설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노덕현 기자**

### 새 연재 안내

절 속의 문화 읽기	12면
불교와 무술이야기	20면
국순려의 팔사 이야기	20면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20면
지상법당	27면

‘벗다’의 선물! 목없이야겅없이즐거는~  
**보리수 반신욕**

4계절!!  
사찰에서 · 거실에서  
어디에서나~

## 온 식구가 평생 쓰는 반신욕! 산림욕!

상체는 차갑게, 하체는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두한족열로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웰빙 반신욕입니다. 물이 필요없이 아낌없이 즐기는 반신욕으로 심신을 맑고 밝게 더 향기롭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씻음으로 '성불' 하시길 기원합니다.

**상품종류**

- 순금부터 반신욕 (규격 L1000×W580×H710) ⇨ '10대 한정'
- 보리수 반신욕 (규격 L1000×W580×H710)
- 호동A 반신욕 (규격 L900×W530×H700)
- 호동B 반신욕 (규격 L910×W630×H770)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스트레스와 긴장이 많은 직업.
-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효과적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 노인 및 신체가 허약하신 분.
- 절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
-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시는 분.
- 술,담배 등을 많이 하시는 분.
-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수험생 등.
-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

**반신욕 체험사례**

추위를 덜 탑니다... (지은 스님)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현정 염마)  
 불면증이 많았는데 잠을 잘게 잡니다... (예쁜 세상)  
 변을 보는 느낌이 좋아졌어요... ^^ (성은 씨)  
 반신욕을 하고 나면 한 참 동안 기분좋네요... (서현 언니)  
 밤에 신경통이 심했는데 정말 신명났습니다... (지연 언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고나니 정결한 마음이 많아요... (은성 딸자)

**구조**

● **구조**

- 온도조절기 (자동 온도 조절, 100도 이하 온도 유지)
- 좌욕기능 (좌욕 시 좌욕기 작동, 좌욕 온도 조절)
- TDP 수리복합디스크 (수리복합디스크 2000회 회전, 좌욕기 작동 시 좌욕기 작동)

● **규격**

제품명	T.D.P 반신욕기
모델명	BM-1000, BP-2000
소비전력/전압	AC 220V / 60Hz / 770W
규격	BM-1000: L1000×W580×H710 BP-2000: L900×W530×H700
중량	BM: 38kg, BP: 30kg
구성	좌욕대 (내장식 수리복합디스크 TDP 발열기) 발열식 좌욕기, 좌욕대 등

● **적삼목**

나무결이 부드러우면서 열과 습기에 강하고 수축, 팽창이 일찍, 갈라짐, 부패를 원인이 되지 않는 유일한 천연 방부목이며 공기정화 및 살균력이 탁월하고 스토레스 해소 및 절로 심혈기능이 강화되며 원이 친하고 다양한 미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산림욕 효과가 탁월합니다.

설치 · 문의 **02)418-1234** http://www.halfbath.kr → 9일간 체험 후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단, 체험시엔 초기설치와 반환배송에 따른 비용이 10만원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